

수석보좌관회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범 정부적으로 노력하되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정책에 대한 찬반도 있고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공청회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쳤지만 야당과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핵심 발전전략이라는 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실수가 아니고,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 시키려는 것이 실수입니다. 이는 국회의 존재근거와 민주적 국정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